
대학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면접전형을 중심으로

한우석[†], 강경희^{††}, 김진경^{†††}, 이해경^{††††}

A Study of High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n the Admissions Officer Interview System for College Admission: Focusing on the interview screening

Woosok Han[†], Jinkyung Kim^{††}, Kyung-hee Kang^{†††}, Hye-Kyung Lee^{††††}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통해 입학사정관제의 면접영역에 대한 평가와 입학사정관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대전지역 인문계 고교 교사들의 응답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잠재력 평가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가치관과 도전정신, 적극성 등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였고, 인성 평가와 관련하여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 갈등극복의 유연성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외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보장되어야 할 면접문항은 학생들의 의욕과 인성관, 창의성 등이었다. 둘째,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만족도는 총 15 점 중 9.34점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학사정관제의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입학사정관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입학사정관제도, 면접전형, 잠재력평가, 인성평가, 개선방안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high school teachers on the evaluation criteria of the college admission officer interview system and to suggest approaches to improve the interview system. The survey results of teachers' perceptions are the following. First, for 'potential' criteria, teachers consider challenging spirit and students' initiatives are important evaluation criteria. For 'personality' criteria, they contemplate that responsibility, community spirit and flexibility to resolve conflicts are important values. Further, views of life and creativity also need to be seriously considered in the screening process. Secon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college admission officer system was relatively high (9.34 points). Last, in order to improve the interview screening system, teachers assert that the process to secure fairness is required. Based on the results, suggestions were made for ensuring expertise of college admission officer and improving the alternative policy of the admission officer interview system.

Key Words : Admission officer system, Interview screening, Evaluation of potential, Evaluation of personality, Improvement Approach

1. 서론

지식, 정보화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변화가 가

속화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달라지고 있다. 21세기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최근 대학마다 시행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학의

[†]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조교수(주저자)

^{††}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조교수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 2012년 1월 20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 2012년 2월 17일

본 논문은 건양대학교 교내 연구과제로 수행됨(KYU-AO-RR-2010-1)

학생선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3]. 이러한 입학사정관계는 대입자율화 정책의 중점사업의 하나로 대학이 점수 위주의 기계적 학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식 입시제도로 알려진 입학사정관계가 교육제도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계는 2004년 10월 발표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3]. 이 개선안에서 입학사정관계는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입학사정관계도에 대한 인식은 보다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평가체계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즉 대학신입생 선발방법에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대학의 설립이념, 발전전략 및 각 모집단위의 특성을 감안한 선진화된 전형방법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3],[7]. 2007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입학사정관계는 10개 대학에서 운영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40여개 대학에 총 158억원의 사업예산비를 배정, 지원함으로써 확대되었다[8]. 또한 2009년에 90개 대학으로 확대되면서 2010년에는 총 90개 대학 24,600여명(총 모집인원의 6.6%)를 선발하게 되었고, 2011년도 대학입학전형 모집 인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은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9].

그러나 대학입학사정관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입학사정관계도는 대학과 고등학교의 준비도와 학생, 학부모의 인식 등과 맞물려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입학사정관계도가 지닌 긍정적 효과로는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선발의 다양화,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에 따라 입학전형방법의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 가능, 고교 및 대학 간의 교류확대 및 정보교환 등 대학입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으로 입학사정관의 지위 및 법적 책임의 불명료성, 입시경험 부족 및 체계적 교육의 미흡으로 인한 낮은 신뢰도, 공정성의 논란 등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된 우려 역시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4].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사정관계의 전형과정과 방법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선발을 위해 활용되는 전형자료의 구성과 절차, 면접의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타당성 있고 신뢰성이 확보된 전형체계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입학사정관계와 관련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대학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전반적 소거나 입학사정관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거나 입학사정관 제도와 관련한 대학 관계자들의 인식을 논하는 수준에 한정되어 있었다[4],[5].

이에 본 연구는 입시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통해 입학사정관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현실적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는 교육현장의 실체를 반영한 것이므로 실천적 대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대학입학사정관계 면접 전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 영역에서의 우선순위 및 보강 영역 등을 조사함으로써 입학사정관계가 갖추어야 할 현실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보다 실제적인 기초자료로서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문헌검토

2.1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 제도

20세기 자원 기반 사회에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물질 자본에서 인적 자원으로 바뀌고 있다. 한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은 그 나라의 경제력은 물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지식사회를 구현하고 국가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고급인력의 양성, 확보가 시대적, 국가적 과업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학문의 연구 기능 및 전문인력 양성 기능을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대학의 패러다임 또한 시대적 환경에 걸맞게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1],[2].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시행된 입학사정관계는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선발전문가로 입학사정관을 채용해서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성적을 비롯한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11]. 이러한 입학사정관 제도는 비교과의 비정량적인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성적 위주의 전형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정관이라는 용어는 합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책임자라는 어감이 강한데 비해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은 그 역할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학입학과 관련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오랫동안 점수 위주의 사정방식에 익숙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험점수가 낮은 학생이 합격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등 입학전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다소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10].

따라서 입학사정관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학사정관 제도 운영과 선발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제도의 정착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는 것이다.

2.2 입학사정관제 관련 선행연구

현재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하여 논의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제도를 도입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의 제도 정착과 안정, 제도의 발전을 위한 철학적 논의와 모델의 정립 등 기초적 연구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많은 연구에서 입학사정관 제도 운영 실태와 입학사정관의 인식을 고찰하면서 입학사정관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보장을 통해 업무 환경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학생 선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이 제도가 우리나라 교육체제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2],[4].

일부에서 이루어진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6]에서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국내의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사례를 조사함은 물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입학사정관의 역할과 업무 내용, 입학사정관의 교육, 책무 및 입학사정관제의 조직과 운용 등을 조사하고 욕구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입학사정관 제도의 외형적 측면에 초점이 주어져 있을 뿐 실제 운영과 평가기준의 구체적 측면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대학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 고교와 대학 간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입학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지 않는다면 입학사정관제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입시비리 및 사교육의 확대라는 부작용들이 새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입학사정관제가 시범운영 이후 확산되는 시점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대학입학사정관제의 평가 및 기대에 대한 분석은 이 제도의 성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교 교사들의 입학사정관제 제도의 구체적 제도 운영과 관련한 면접 문항 분석과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과 고등학교 현장이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고, 현재 입학사정관제의 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제도 운영의 우선순위와 현실적 개선방안을 규명, 불필요한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입학사정관 제도의 면접 운영방식과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및 기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 5개 인문계고교의 진학담당 및 고3 담임교사 총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목적 및 조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대학생 5명으로 구성된 조사원들이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총 배포된 설문은 150부였으나 설문지 중 응답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13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3.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는 일반문항과 고등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입학사정관 전형 면접 문항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입학사정관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기존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관한 논문들의 설문지를 참고하고, 입학사정관 및 입시담당 고교교사의 자문 및 지도를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구성

영역	내용	문항
면접문항에 대한 전반적 평가	면접 우선순위, 보강문항	1~3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전반적 사항	개선방안, 기대효과, 만족도	4~13
기본사항	성별, 연령, 학력, 학교설립유형, 근무년수	14~18

3.3 자료분석방법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면접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과 평가 및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등에 대한 응답은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38)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	105(76.1)
	여	33(23.9)
연령	30세 미만	18(13)
	31~40세	39(28.3)
	41~50세	58(42)
	50세 이상	23(16.7)
학력	전문대졸 이하	3(2.2)
	대졸	70(50.7)
	석사	63(45.7)
	박사	1(0.7)
학교설립유형	국공립	95(68.8)
	사립	43(31.2)
근무년수	5년미만	26(18.8)
	5~10년미만	29(21.0)
	10~15년미만	13(9.4)
	15~20년미만	19(13.8)
	20년이상	51(37.0)

조사대상자 중 76.1%에 해당하는 105명이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33명(23.9%)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세 미만이 18명(13%), 31~40세가 39명(28.3%), 41~50세가 58명(42%), 50세 이상이 23명(16.7%)로 나타나 40세 이상이 5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하가 3명(2.2%), 대졸이 70명(50.7%), 석사가 63명(45.7%), 박사가 1명(0.7%)으로 대부분의 교사들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이고 있었다. 학교설립유형은 국공립 95곳(68.8%), 사립 43곳(31.2%)으로 국공립의 비율이 2배 이상 많았다. 학교근무년수는 5년 미만이 26명(18.8%), 5~10년 미만이 29명(21%), 10~15년 미만이 13명(9.4%), 15~20년 미만이 19명(13.8%), 20년 이상이 51명(37%)로 나타났다.

4.2 입학사정관 면접문항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면접을 통해 평가하고 있는 잠재력과 인성영역에 있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일선 고교 교사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잠재력 평가의 항목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성에 대한 다중응답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응답자들은 학생들의 가치관(17.7%)과 도전정신(15.7%), 적극성(14.2%) 등의 특성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 잠재력 평가에서 중요한 특성

주요 특성	가치관	도전정신	적극성	현실성	능동성
빈도 (%)	71 (17.7)	63 (15.7)	57 (14.2)	54 (13.4)	54 (13.4)

인성평가와 관련한 특성으로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제시한 특성은 책임감(29%)과 공동체 의식(22.8%), 갈등극복의 유연성(14.9%)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인성 평가에서 중요한 특성

주요 특성	책임감	공동체 의식	갈등극복 유연성	적극성	리더쉽
빈도 (%)	117 (29.0)	92 (22.8)	60 (14.9)	46 (11.4)	43 (10.7)

그 외 응답자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보장되어야 할 면접문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표 5>에 나타

난 것과 같이 학생들의 의욕(17%)과 인생관(14.3%), 창의성(13.8%) 등이다.

〈표 5〉 보강되어야 할 면접문항

주요 특성	의욕	인생관	창의성	재치	직업관
빈도 (%)	170 (17.0)	143 (14.3)	138 (13.8)	112 (11.2)	96 (9.6)

4.3 입학사정관 제도 전반에 관한 인식

일선 고교 교사들이 생각하는 입학사정관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은 크게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와 만족도, 입학사정관 제도의 개선방안 등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로 ‘학생들이 적성위주의 학과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견과 ‘대학별 입학전형이 특성화된다’, ‘대학설립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학생선발이 가능하다’이 높게 나타나 학생들의 적성 탐색과 대학별 특성화 등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입학사정관제 기대효과

면접문항	평균	표준편차
대학설립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학생선발이 가능하다.	3.311	0.957
학생들이 적성위주의 학과선택을 할 수 있다.	3.579	0.949
소외계층의 대학진학이 확대된다.	3.0217	1.08384
명문대 진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완화된다.	2.6159	1.09626
입학관련 업무가 전문화된다.	3.260	1.055
대학별 입학전형이 특성화된다.	3.521	0.945
전인적 교육이 강화된다.	3.282	0.966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된다.	2.6667	1.06252
사교육 비용이 감소된다.	2.4783	1.10220
학생들의 입시부담이 줄어든다.	2.5507	1.14032

다음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고교 교사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본래 입학사정관제도의 취지 부합에 대한 평가와 확대 여부 등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총15점 중 9.34점으로 다소 높았고, 측정 개념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항목 척도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Cronbach’s alpha(α)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수의 신뢰도계수가 .750으로 나타나 문항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표 7> 참고

〈표 7〉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만족도

구분	내용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문항	나는 현재 실행중인 입학사정관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2.833	0.963	.750
	나는 학생들에게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편이다.	3.420	0.910	
	나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087	1.063	
만족도 총점		9.340	2.402	

한편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입학사정관 제도 기대효과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만족도와 기대효과 간에는 .243**부터 .542**까지 모두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542**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8〉 기대효과와 만족도 간 상관계수(pearson 계수)값

기대효과 문항	r 값
대학설립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학생선발이 가능하다.	.490**
학생들이 적성위주의 학과선택을 할 수 있다.	.306**
소외계층의 대학진학이 확대된다.	.392**
명문대 진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완화된다.	.399**
입학관련 업무가 전문화된다.	.440**
대학별 입학전형이 특성화된다.	.243**
전인적 교육이 강화된다.	.414**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된다.	.542**
사교육 비용이 감소된다.	.522**
학생들의 입시부담이 줄어든다.	.520**

주 : ** : p<.001

또한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은 <표 9>와 같다. 일선교사들은 양적평가와 질적평가의 비율은 5:5(64.6%)의 비율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전형과정 중 가장 중요한 전형으로 인성, 적성검사(39.1%)와 면접(38.4%)을 제시하였다. 또한 입학사정관이 신입생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내용으로는 자기소개서(55.8%), 봉사경력(15.2%), 특기 및 취미사항(1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입학사정관제 개선방안 단위:명(%)

특성	구분	빈도(%)
전형비율 (양적평가 대 질적평가 비율)	9:1	2(1.4)
	7:3	17(17)
	5:5	64(46.4)
	3:7	55(39.9)
	1:9	0
중요전형방법	내신성적	10(7.2)
	수능성적/면접	13(9.4)
	논술시험	8(5.8)
	인성/적성검사	54(39.1)
	면접	53(38.4)
주요평가기준	자기소개서	77(55.8)
	특기/취미사항	20(14.5)
	리더쉽경력	12(8.7)
	봉사경력	21(15.2)
	수상경력	7(5.1)

마지막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73.8%)를 주요한 개선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입학사정관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영역별 주요과제에서 일차적으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과제로는 입학사정관의 교육, 훈련, 연수지원(46.4%)을 제시하였으며, 입학사정관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는 입학사정관제의 운영 평가 및 컨설팅(38.4%)을 주요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는 입학사정관제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확립(61.6%)을 요구하였으며, 성공적 정착과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 대학의 적극적 제도 도입과 운영의지(31.9%)를 꼽았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입학사정관제 개선방안 (N=138)

특성	구분	빈도(%)
우선적 개선방안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	88(63.8)
	사정관 지위확보	18(13.0)
	교육 다양화와 고교 공개	18(13.0)
	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	13(9.4)
효율 과제	입학사정관 양성프로그램	41(29.7)
	입학사정관 훈련	64(46.4)
	입학사정관협의회구성	24(17.4)
	입학사정관 고용안정	8(5.8)

신뢰도 과제	공정성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4(17.4)
	입학사정관제 평가 및 컨설팅	53(38.4)
	전형자료 데이터베이스구축	44(31.9)
공정성 과제	입학사정관제 홈페이지 구축	15(10.9)
	우수학생개념 정립	22(15.9)
	주관적 평가 일관성	24(17.4)
	절차의 투명성 확보	85(61.6)
성공적 과제	전국민적 홍보	5(3.6)
	대학적극의지	44(31.9)
	정부지원확대	19(13.8)
	고교자료신뢰제고	33(23.9)
	사회적 공감대	40(29)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통해 입학사정관제의 면접영역에 대한 평가와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에 대한 현실적 검토를 시도한 것이다. 138명의 대전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고등학교 교사들은 잠재력 평가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가치관(17.7%)과 도전정신(15.7%), 적극성(14.2%) 등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였고, 인성 평가와 관련하여 책임감(29%)과 공동체 의식(22.8%), 갈등극복의 유연성(14.9%)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외에 보장되어야 할 면접문항은 학생들의 의욕(17%)과 인성관(14.3%), 창의성(13.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선 고교 교사들이 생각하는 입학사정관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으로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와 만족도, 입학사정관 제도의 개선방안 등이 조사되었다. 우선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로 ‘학생들이 적성위주의 학과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견과 대학특성에 맞는 학생선발과 대학별 특성화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만족도는 총15점 중 9.34점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과제로 입학사정관의 교육, 훈련, 연수지원을 요구하였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는 입학사정관제의 운영 평가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공정성 과제로는 입학사정관제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확립과 성공적 정착과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 대학의

적극적 제도 도입과 운영의지를 꼽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언들은 입학사정관제도가 갖추어야 할 보다 현실적 방안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입학사정관제 면접전형에서 대부분의 대학은 기초학업능력과 잠재력, 인성영역 등으로 분류하여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 기초학업능력은 개별학과와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에 대한 기본지식과 이해를 평가하는 것이고, 잠재력 영역은 장래희망 및 열정과 목표의식에 관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인성영역에서는 사회성과 성실성 등을 평가한다. 이에 대한 일선고교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미래의 자아상과 그에 따른 노력, 학과에 지원한 이유와 관심도, 지원학생의 경쟁력 등의 문항이 잠재력 평가에 적합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잠재력 평가 주요 항목으로 가치관, 도전정신, 적극성 항목을 선호하였다. 또한 인성평가에서는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 경험, 봉사활동에의 자발적 참여 또는 활동내용, 대인관계 등의 문항이 인성 평가에 적합하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하여 면접문항 및 면접기법의 활용에 있어 이러한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면접문항과 사례개발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집중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일선교사들이 제기한 입학사정관제도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후속 연구 및 교육정책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입학사정관 전문양성기관을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입학사정관제도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입학사정의 다단계 및 다수자 평가, 입학전형 관련 정보 공개, 입학사정관 활동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 전형자료 전산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셋째, 입학사정관의 업무수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지원을 위한 조직을 별도로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전지역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의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의 입학사정관제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데 미흡한 만큼 제한적이거나 탐색적 수준에서 이들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과 기대를 폭넓게 살펴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강태중·이성호·김동민(2009). 입학사정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0(4), 151-175.
- [2] 강현석(2010). 중등 교육과정과 입학사정관제의 연계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교육과정연구*, 28(2), 121-141.
- [3] 교육인적자원부(2007). 대입전형 선진화를 위한 입학사정관제 지원계획(안).
- [4] 권승아·성태제(2009). 입학사정관 제도 운영 실태와 입학사정관의 인식. *교육학연구*, 47(1), 95-118.
- [5] 김석우·황혜익·김아영·김수연·김성숙(2009).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분석을 통한 대학입학사정관제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방법 고찰. *교육평가연구*, 22(3), 587-614.
- [6] 김승태(2009).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성과 평가: 시범 실시 대학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3(4), 169-197.
- [7] 문주천(2009). 입학사정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8] 이제중(2009). 대학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인식 및 기대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9] 조동현·황홍익(2011).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특성화고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대전·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교육연구*, 25(1), 27-42.
- [10] 최진규. 입학사정관제 공교육 정상화 주춧돌 되길. *세계일보*. 2008.3.10.
- [11] AAMC(2004). Handbook for Admissions Officers.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한 우 석



- 1990년 : Lynchburg college 수학과 졸업(학사)
- 1993년 : University of minnesota 보험통계학과(석사)
- 2008년 : 건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 2008년 ~ 현재 : 건양대학교병원관 리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병원경영, 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
 · E-Mail : wshan@konyang.ac.kr

김 진 경



- 2007년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Ph.D. in Health Policy)
- 2008년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보건정책, 영양병원 질관리
- E-Mail : jkim@konyang.ac.kr

강 경 희



- 2010년 : 경북대학교 미생물학과(이학박사)
- 2008년 ~ 현재 :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
- E-Mail : dhkhkang@konyang.ac.kr

이 혜 경



- 2007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8년 ~ 현재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 E-Mail : hklee@konyang.ac.kr